

welcron⁺in

2017 신년호 Vol.09 웰크론그룹 사보 '웰크론인'



2017 세사리빙 · 세사 모델 하지원

 WELCRON

- (주)웰크론
- (주)웰크론강원
- (주)웰크론한텍
- (주)웰크론헬스케어
- (주)웰크론글로벌비나



미국 내 정유소 95%를 차지했다고 알려진
‘석유왕’ 록펠러는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건강함을 잃지 않았다. 비록 머리는 희었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던 그는
여전히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한 록펠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 건강의 비결을 물었고 그는 대답했다.

“저 나무를 보십시오. 매우 오래된 고목이지만
올해 피운 꽃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매년 새 가지를 뻗어내고 있지요.”

— 석유왕 록펠러의 일화 中

지나간 세월보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찬 한 해에도 성장의 노력을 기울이는
록펠러의 이러한 자세는
우리에게 내일을 준비하는 태도를 알려줍니다.

록펠러는 부유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가정 속에서 성장하면서
주급 4달러로 첫 직장을 얻었고,
단돈 1센트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작은 손실을 줄이는 것이
이후 커다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가솔린 자동차의 개발과 맞물려
그를 세계적인 대부호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꾸준히 돈을 모으지 않았다면,
에디슨의 전구발명으로 등유를 팔 수 없다는
현실에 절망하고 주저 않았다면
오늘날의 록펠러 가문은 존재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루하루 고된 현실에 주저 않고 싶을 때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희망찬 미래를 얻은
록펠러의 정신.
이것이야말로 그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꼽힌 원동력일 것입니다.

welcron인 여러분
2016년의 지나간 아쉬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017년의 다가올 내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2017 **신년호** Vol.09

welcron그룹 사보 ‘welcron인’



표지 이야기

welcron의 침구브랜드
세사리빙 · 세사의 새 얼굴
배우 하지원!
수줍게 미소짓는 그녀의
모습이 싱그럽다.

하지원이 덮고있는 침구는
세사리빙 2017 S/S 신상품 '나인(NINE)'

발행일 2017년 1월 19일(통권 제9호)
발행인 이영규
발행처 welcron그룹 전략마케팅실 홍보IR팀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12)
tel. 02.2107.6742
fax 02.539.8115
기획 · 디자인 (주)디자인페이지
tel. 02.324.9422
출력 · 인쇄 솔텍
tel. 02.2269.5014

Welcron Story

- 04 **신년사**
- 06 **Special Theme**
집중의 힘, 함께 만들어가는 비전과 미션
- 08 **Theme Talk**
핵심가치로 만들어가는 welcron그룹의 2017년
- 10 **찰칵! 현장스케치 01**
welcron한택 일본 진출의 주인공, 이마리그린파워
- 12 **Zoom in Story**
welcron, 차별화된 방탄·방검복을 탄생시키다
- 14 **미래를 보다**
welcron헬스케어 화장품사업본부, 힘찬 첫발을 내딛다
- 18 **welcron그룹은 지금**
welcron강원의 지금 이 순간, HRSG 사업을 말하다

Welcron People

- 20 **파워 인터뷰**
welcron한택 건설사업본부 이영식 부사장
- 22 **welcron인 무한도전**
welcron그룹 2016 야간행군
- 24 **하나되는 welcron인**
welcron그룹 야구동호회, 준우승의 쾌거를 달성하다
- 26 **아빠는 셰프**
welcron 기술연구소 응용제품연구팀 권은희 부장 가족
- 30 **행복을 파는 가게**
세사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세사리빙 천안 성정점
- 32 **다함께 예체능**
welcron그룹 사진동호회 TAPS
- 36 **따뜻한 시선**
welcron&에지미인 24기 주부모니터 체험후기

Welcron Life

- 38 **Travel & View**
겨울 여행의 백미, 무주 덕유산
- 40 **Issue & Trend**
홈 인테리어 전성시대
- 42 **찰칵! 현장스케치 02**
전속모델 하지원과 함께한 침구 카탈로그 촬영 현장

46 **News**

50 **빨간우체통**



“
신뢰와 독심
경영이 만들어낸 2016년,
도전과 기술융복합,
수익성 제고로
만들어갈 2017년,,

2016년 한 해가 가고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웰크론그룹의 모습을 '웰크론+in 2017 신년호'를 통해 여러분께 선보이고, 활기찬 새해의 시작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는 글로벌 경기부진에 국내적으로는 정치, 사회적 이슈가 겹쳐 그 어느 해보다 어려움이 많았던 때가 아니었나 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임직원들을 믿고 기다리는 '신뢰와 독심의 경영'을 실천해왔고, 그룹의 비전체계를 모든 팀 단위까지 재정립하는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그 어느 해보다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도 이런 제게 동참과 협력으로 호응하며 희망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고, 위기 속에 빛나는 웰크론그룹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웰크론은 'Total Lifestyle Living Company'로의 성장을 위한 리빙부문의 조직 및 시스템의 개혁이 있었고, 경찰청의 방탄·방검복을 수주하면서 방산사업 분야에서 좋은 실적을 거뒀으며, 인공혈관 등 미래신수종 사업으로의 출범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웰크론강원은 HRSG 보일러 수주 및 중국 EPC 업체와의 계약 성공 등 동종업계의 실적 부진 속에도 신규아이템으로의 도전 및 시장영역을 확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웰크론한텍은 건설사업본부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함과 동시에, 이마리그린파워를 통해 발전사업 분야에 진출했으며 플랜트사업부가 다양한 고객사로부터 수주를 이끌어내며 안정적인 성장의 발판을 구축했습니다.

웰크론헬스케어는 재도약을 위한 조직구축을 새로이 완료했으며, 화장품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등 각 가족사별로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이고 의미 있는 행보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7년의 경영환경을 IMF 위기가 도래했던 1997년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2017년은 우리 웰크론그룹에게 또 다른 도약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다가올 2022년, 웰크론그룹의 비전인 '2022 2·2·2'달성을 위해서는 올해 2017년이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의 비전에 대해 '어려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라고 의문을 가지는 이들도 있겠지만 이럴 때면 저는 '눈사람 만들기를 통해 해답을 제시합니다.

눈사람을 만들기 위해 처음 눈을 뭉치면 잘 달라붙지 않습니다. 물을 묻히고 계속 두드리며 다져주다 보면 조금씩 그 크기가 커지면서 제법 큰 사이즈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일정시점부터는 조금만 굴려도 눈의 크기가 쑥쑥 커지고, 굴리기도 쉬워집니다. 저는 올해가 그 시점이며, 우리그룹의 성장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불굴의 도전, 중단 없는 도전, 담대한 도전으로 성장과 도약의 '웰크론그룹 눈사람'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웰크론그룹과 전임직원이 함께할 경영방침은 '도전', '기술융복합', '수익성 제고'입니다. 이 세 가지 경영방침을 바탕으로 웰크론그룹은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모든 임직원과 함께 한마음 한 뜻으로 도약의 길을 향해 전진할 것입니다.

2017년,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어려운 일들과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기업이 강한 기업입니다. 저희 웰크론그룹의 임직원들은 두려움 보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새해 첫 날을 열어갑니다. 강한 기업, 웰크론그룹이 만들어갈 희망찬 내일에 모두 주목해 주십시오!

웰크론그룹 회장 이명규 



고수와 하수를 구분 짓는 것 중 하나가 집중력이다.
고수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하수들은 오래 일하지만 적게 벌다.
이는 고수들이 남들은 하지 못하는 일,
대체할 수 없는 일을 찾아 집중했기 때문이다.
반면 하수들은 뚜렷한 목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한다.
이처럼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한근태 소장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라

망하는 식당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메뉴가 많다는 것이다. 한식부터 중식까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가 총망라된 메뉴판은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구성한 메뉴판은 사실 아무도 만족하게 만들지 못한 것이다. 반대로 성공하는 개인과 조직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집중력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구성원들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어 낭비 요소가 없고 투자 대비 효과가 뛰어나다. 마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공부하고 놀 때는 노는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것이야말로 집중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명확해야 한다. 가고자 하는 방향 즉, 비전이 확실하고 모든 구성원이 비전달성에 공감하고 있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비전의 설정은 중요하다. 만약 이와 같은 방향성이 불명확하면 재앙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재앙을 뜻하는 단어 'Disaster'의 뜻은 사라진다는 의미의 'dis'와 별을 뜻하는 'aster'로 구성되어 있다. 별이 사라지는 것이 바로 재앙과 직결한다는 의미이다. 과거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는 바다를 향해갈 때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 구름이 끼거나 폭풍우가 닥치면 별이 보이지 않게 되어 길을

잃고 헤맬 수밖에 없었고, 이는 생명과 금전에 막대한 재앙으로 연결되었다. 이 단어의 뜻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개인과 조직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 없고 혼란이 가중된다. 그래서 집중이 필요하다.

홀푸드의 집중전략

집중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홀푸드를 꼽을 수 있다. 홀푸드는 유기농을 전문으로 하는 슈퍼마켓으로 레드오션이지만,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단위면적당 수익이 미국 내 최고로 꼽히는 홀푸드는 현재 194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1년 매출이 60억 달러에 이른다. 1992년 상장 이후 주가가 거의 3천 포인트가 올랐고, 2002~2007년 사이 매년 11%씩 성장 했으며 70억 달러에 이르는 주가 총액을 갖고 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러한 성과를 이뤄낼 할 수 있었을까?

첫째, 시명을 통한 비전을 설정했다

홀푸드의 사명은 '좋은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이 사명을 모든 직원이 공유하고 있다. 도살 직전의 동물을 인도적 차원에서 다루고, 자체 해산물 처리공장도 갖고 있다. 또한 널찍한 공간에 유기물 농산물과 자연식품이 가득 차 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지만 사명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전제가 회사를 움직이고 있다. 고객들은 몸과 환경에 좋고 맛있는 음식들에 가까이 높은 가격을 지불 할 것이란 믿음 아래 고객들의 쇼핑은 허드렛일이 아닌 새로운 요리를 위한 모험처럼 느낄 수 있도록 진열대를 구성함으로써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둘째, 비전에 맞춰 불필요한 요소들을 배제했다

홀푸드는 가고자 하는 방향과 사람, 평가제도, 자원배치, 투자계획 등 모든 것을 비전에 맞춰 한 방향으로 재정리했다. 이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지금 해야 할 것과 나중에 해야 할 것, 내가 할 것과 다른 사람이 할 것을 구분해 모든 시간과 자원을 목표달성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정리정돈을 통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정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할 일을 먼저하고 정리한다. 결국 일은 계속 쌓이고 지레 지치게 된다. 모든 것을 하려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정리정돈의 개념이 집중력과 연관되는 이유다.

시간과 비용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다. 때문에 어떤 비전을 설정하는지, 어떤 목표에 집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새로운 비전과 목표의 설정으로 함께 나아갈 길을 만들어가는 웰크론그룹의 '집중'을 기대해 본다.



함께 만들어가는 웰크론그룹 비전, 미션, 핵심가치

하나되어 눈부시게 도약할 웰크론그룹의 내일을 위하여

섬유산업과 환경산업에 이어 헬스케어, 에너지산업을 통해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웰크론그룹. 차가운 불황의 한파 속에서도 성장을 거듭해온 웰크론그룹은 더 나은 미래를 찾기 위해 임직원들의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비전, 미션, 핵심가치 수립에 나섰다.



비전, 미션, 핵심가치로 그리는 웰크론그룹의 미래

웰크론그룹은 지난해 8월부터 그룹 그리고 각 사별, 본부별, 팀별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 수립 작업에 돌입했다. 그룹 비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같은 꿈, 같은 희망에 대한 공감대로 하나가 되어야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강한 추진력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이영규 회장의 강력한 의지에서 시작된 작업이었다.

지난해 8월과 10월 진행된 임원 워크숍, 11월 한 달간 진행된 본부별 워크숍을 통해 웰크론그룹 임직원들은 구체적인 미래의 목표인 '비전', 기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인 '미션', 조직 내에서의 바람직한 행동을 제시하는 기본규범을 의미하는 '핵심가치'를 수립하고,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 2일! 웰크론그룹은 안산중소기업연수원에서 2017년 비전, 미션, 핵심가치를 최종 선포했다. '물, 에너지, 환경, 건강 분야의 세계일류기업(Global Top-Tier Company for Water, Energy, Eco, Health)'으로의 비전을 선포하며 7가지의 핵심가치를 소개한 웰크론그룹은 각 그룹사마다 정한 비전과 미션, 핵심가치를 함께 알렸다. 이는 앞으로 웰크론인들의 공통 언어이자 행동양식이 될 것이다.



목표

2022 2 2 2

매출 2조 원 이익 2천억 원, 시가총액 2조 원 달성

웰크론: 5,000억, 한텍: 5,000억, 강원: 3,000억, 헬스케어: 3,000억, 글로벌비나: 2,000억, 글로벌M&A: 2,000억

웰크론인에게 전하는 박현수 본부장의 한마디

이번 비전, 미션, 핵심가치 수립에 있어 핵심 역할을 담당한 그룹미래전략 본부 박현수 본부장은 이 작업의 중요성에 대해 "기업은 곧 사람이기에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엮이지 않고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공통의 언어, 공통의 행동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통'의 의미가 '강제로 획일화한다'는 개념이 아닌,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즉 다양한 사고, 다양한 활동 등이 한 방향을 향해 집중하는 과정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 본부장은 비전 및 미션, 핵심가치 실행에 가장 필요한 것은 '도전'과 '자기확신'이라고 말한다. 현재 상황에 고착되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천장을 깨고 도전하는 의지와, '반드시 해낼 수 있다'는 임직원 스스로의 자기확신이 2022년에 이르는 대장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원동력이 되리라는 생각에서다.

"지난 2016년 8월, 임원워크숍을 통해 첫 비전설정 과정을 시작하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이 무색하게도 모든 임직원이 스스로, 열정적인 태도로 모든 과정에 임했으며, 워크숍 또한 큰 흥미와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박 본부장은 이러한 모습이 "큰 감동과 놀라움으로 다가왔다"며, "웰크론그룹 비전 달성 시 이뤄낸 성과는 전 임직원과 함께 나누겠다고 회장님께서 공언하신 만큼, 이 지면을 빌어 그룹의 전 임직원에게 과감히 같이 도전하고 꼭 성공의 히스토리를 써 나가자"고 당부했다.

사별 비전

WELCRON 웰크론
건강한 생활문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WELCRON 웰크론환경
융복합기술로 세계를 선도하는 에너지환경분야의 초일류기업

WELCRON 웰크론한력
물, 환경, 에너지 그리고 사람을 생각하는 플랜트·건설 선도기업

WELCRON 웰크론헬스케어
건강, 뷰티 분야의 최고의 충성도(Loyalty)를 갖는 브랜드기업

일본 사가현 이마리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프로젝트

웰크론한텍 일본 진출의 주인공, 이마리그린파워



웰크론한텍은 2016년 9월 1일, 이마리그린파워의 설립을 통해 에너지 발전사업에 뛰어 들었다. 일본 규슈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이마리그린파워는 나나츠지마 공업단지에서 23MW급 바이오매스 발전소 2기 건설을 통해 연간 36만 MWh의 전력을 생산, 규슈전력주식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2020년 3월 상업운전을 목표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분야에 국내최초로 첫 발을 디딘 이마리그린파워를 속속들이 들여다보자.

국내 최초! 일본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 '이마리그린파워'

지난 2010년, 일본은 현재 18%에 머무르고 있는 에너지 자급률을 2030년까지 두 배로 끌어올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70%까지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국내 발전사들의 해외 진출은 막대한 정치적 리스크, 제도의 미비 등으로 시장진입 조차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성공사례도 흔치 않았다. 따라서 일본이 발표한 에너지기본계획은 일본 바이오매스 발전시장으로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키고, 해외기업에 대한 진출의 폭도 넓힐 것이라는 기대감이 자리 잡았다.

그러나 발전사업으로의 진입장벽은 여전히 높았다. 일본에서 요구한 설비와 인증서 취득, O&M 면허, 기술 자격증 취득 등의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예상됐다. 이에 이마리그린파워는 서두르기보다, 웰크론한텍의 건설 기술력과 EPC, O&M을 추진하기 위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조건을 충족해나갔다. 그 결과 공기업 발전사로부터 연이은 러브콜을 받으며 국내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일본의 바이오매스 발전시장이라는 블루오션에 뛰어 들 수 있었다.

interview



이마리그린파워
박수정 대표

프로젝트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생명체가 잉태부터 출생, 성장까지 많은 역경을 겪은 후 결실을 보듯이 이마리그린파워도 성공까지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마리그린파워 프로젝트가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마주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용기를 갖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그룹사 가족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끌어 2020년 이후,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이마리그린파워의 이름을 모두가 알고 있는 친숙한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마리그린파워 사업개요

구분	내용
사업명	이마리그린파워 발전사업
사업방식	BOO(Build-Own-Operate)
시설규모	23MW * 2기
주요설비	보일러, 증기터빈, 발전기
사업지역	일본 사가현 이마리시 나나츠지마 공업단지 내
소유부지	153,904㎡(약 46,638평)
사용연료	PKS(Palm Kernel Shell) + Wood Pellet
공사기간	착공 후 36개월
운영개시 목표시점	2020년 3월
매전기간	20년간



이마리그린파워
왼쪽 뒷줄부터) 권정미 과장, 김영한 과장, 권대규 부장, 산성수언 과장, 강성주 대리
왼쪽 아랫줄부터) 박수정 대표, 권우현 이사

이마리그린파워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

이마리그린파워는 이마리시 나나츠지마 공업단지 내에서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가장 적합한 일대에 자리 잡았다. 발전소와 변전소의 위치가 가깝고, 냉각수로 사용할 해수가 인근에 있는 이 부지는 사가현에서 발전소 단지 조성을 위해 비워둔 곳으로 지진과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도 없어 바이오매스 발전설비를 설치하기에 최적의 조건이다. 약 46,638평 부지에 설치될 23MW급 바이오매스 발전설비 2기는 PKS(팜야자껍질)을 원료로 사용하며, 2017년 3분기 EPC업무 착수를 시작해 2020년 3월 상업운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마리그린파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약 1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일본의 규슈 전력과 KWh당 24엔의 전력판매단가를 조건으로 20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이마리그린파워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보장받았다. 이마리그린파워의 설립으로 웰크론한텍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는 박수정 대표는 "발전사업은 진입장벽이 높지만 정부로부터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별도의 영업, 마케팅 노력이 필요하지 않고 제품의 재고가 발생하지 않아 효율적"이라며 향후 에너지 발전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평가했다.

에너지사업개발부터 EPC 및 O&M 사업진출, PF 금융조달까지의 플랜트 사업 전 과정과 바이오매스의 선진기술 등 관련 역량의 축적을 꾀하는 이마리그린파워. 그들의 포부가 웰크론그룹 2020 비전 달성의 커다란 한 획이 되기를 응원한다.

웰크론 기술연구소

웰크론, 차별화 된 방탄·방검복을 탄생시키다

2015년,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으로 경찰이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후 총기관련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경찰청은 방호수준을 강화하고, 방탄과 방검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신형 방호장비의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 경찰청의 주관 하에 공개 경쟁 입찰이 시작됐고, 국내 유수의 방탄복, 방검복 제조업체들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 중에서도 웰크론은 단연 돋보였다.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타 업체들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종 입찰에 성공한 것이다.

방호 수준과 방검 성능을 더욱 향상시킨 방탄·방검복

2016년 10월, 웰크론은 경찰청과 39억 원 규모의 방탄·방검복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제 대한민국 경찰은 웰크론의 기술력이 담긴 신형 방탄·방검복으로 보다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웰크론에서 개발한 방탄·방검복은 기존에 사용됐던 방검복과 달리 모든 방호장비에 방탄 기능을 추가하고 방탄 성능의 레벨을 높였다. 대테러 작전용 방탄·방검복은 단날검, 양날검, SPIKE 등의 방호가 가능한 방검성능(NIJ 0115.00 Level 2) 수준으로 업그레이드시켰다.



또한 전·후면의 면적을 늘리고 목, 어깨, 낭십 등의 방호 부위를 추가했다. 일반 경찰용 방호복의 경우에는 기존 방검 성능에 권총탄까지 방호가 가능한 방탄성능(NIJ 0101.06 Level IIIA)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이 역시 방검 성능은 높이고 방호 면적도 넓혔다. 특히 옆구리 방호기능이 가능한 총, 삼단봉, 수갑 파우치는 탈부착이 가능해 디자인의 세련미를 더했고, 중량면에서 타업체 대비 8% 이상 가볍게 제작해 착용감을 고려했다.

경량을 줄여 착용감을 높인 WIF 원단

웰크론 기술연구소에서는 '중량 개선 및 방검 성능 향상'과 '편안한 착용감', 이 두 가지 부분에 중점을 두고 개발을 추진했다. 그래서 적용한 것이 바로 WIF(Welcron Inorganic Fabric) 원단이다. 이 원단은 웰크론이 2014년, 해경부력방검복 제작 시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글로벌 화학기업인 듀폰(DuPont)사의 케블라 섬유(아라미드 섬유)에 세라믹 입자를 코팅하는 특수 표면 가공기술을 적용한 특허소재다. 방검 기능을 강화해 관통의 위험을 초기에 저하시키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방탄·방검복은 원단 소재를 겹겹이 적층하여 제작하는 만큼 소재 별 적층 위치에 따라 방호 기능과 성능이 다르게 발휘된다. 따라서

웰크론 기술연구소에서는 WIF 원단 자체의 기능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방탄, 방검 성능을 보다 강화하고 디자인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연구에 몰두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방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재 적층 위치, 방탄·방검이 동시에 방호 가능한 소재의 적층 위치, 방탄만 가능한 소재 적층 위치 및 타겟의 중량 등을 감안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는 제품을 최종적으로 탄생시켰다. 경찰청은 이 신규 방탄·방검복을 경찰차량에 상시 배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상황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며, 향후 전국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근무하는 전 경찰관에 보급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추가 입찰을 한다는 방침이다. 웰크론은 향후 더욱 우수한 제품개발을 통해 경찰청으로의 지속적인 납품뿐 아니라 소방서, 군 및 경호업체 나아가 해외 수출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 웰크론 기술연구소의 지치지 않는 도전과 열정에 웰크론인들의 관심과 응원으로 보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interview



웰크론 기술연구소
홍호범 팀장

경찰청의 방탄·방검복에 사용되는 WF 원단은 웰크론의 차별화 된 기술력이 돋보이는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웰크론 기술연구소는 방탄·방검복 뿐만 아니라 WIF 원단자체의 공급도 계획하고 있음에 따라 심층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 원단 대비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소재, 저중량 고성능 소재 개발로 앞으로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세요!

웰크론헬스케어 화장품사업본부

기능성 화장품 시장에 도전장을 던지다



세계는 경쟁력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천연 소재로 개발한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은 피부 자극이 덜해 예민한 트러블을 피부를 가진 사람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기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웰크론헬스케어는 이러한 시장 트렌드에 발맞춰 바이오 한방 소재 특허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화장품 개발사업에 문을 두드렸다.



화장품사업본부는 특별한 효과, 탁월한 효능을 가진 천연소재를 새롭게 발굴해 화장품에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웰크론헬스케어의 미래 신성장 동력, 고기능성 화장품

웰크론헬스케어는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여성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한방위생용품 '예지미안'을 통해 2005년 1월, 국내 최초로 한방생리대 제조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여성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유아용품, 화장지, 미용티슈 등 다양한 제품군의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제 웰크론헬스케어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무엇보다 '건강한 피부'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소비자들 증가함에 따라 과감하게 화장품사업에 진출했다. 최대의 효과를 내면서도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화장품을 개발해 건강, 뷰티 분야의 최고의 충성도(Loyalty)를 갖는 브랜드 기업, 웰크론헬스케어로 성장시키는 것이 화장품사업본부의 목표다. 웰크론헬스케어 화장품사업본부 이정선 부장은 "웰크론그룹의 바이오 소재 기술을 활용해 개발한 고기능성 화장품은 미래의 핵심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며 웰크론헬스케어의 우수한 기술력은 화장품 개발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건강한 화장품'이라는 핵심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순수 천연식물에서 추출한 고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화장품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재를 넘어, 특별한 효과, 효능을 가진 천연소재를 새롭게 발굴해 화장품에 연계시키려는 시도를 거듭하고 있다. 웰크론헬스케어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이들의 가장 큰 바람이다.

한 듯 안한 듯, 피부에 스며드는 마스크 팩

웰크론헬스케어 화장품사업본부는 지난해 피부 유형을 고려한 기능별 마스크 팩을 선보였다. '자연과 기술의 조화와 균형'을 슬로건으로 출시한 예지미인 마스크 팩은 자연을 품은 섬인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천연소재를 원료로 개발됐다. 화산용암층에 의해 자연 여과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된 용암해수, 청정 지역에서 재배된 유자, 동백 씨에서 저온 압착 추출한 동백유, 한라산의 생물보존지역에만 자생하는 조릿대의 성분을 토대로 한 총 네 가지 마스크 팩으로 구성됐다.

피부의 영양보충과 회복을 촉진하는 '제주 미네랄워터 보습마스크', 비타민C가 풍부해 피부 염증을 가라앉혀 트러블 개선효과와 미백효과에 뛰어난 '제주 유자 콤플렉스 브라이트닝 마스크', 주름 피부를 윤기 있고 탄력 넘치게 가꿀 수 있는 '제주 동백 디에이징 마스크', 남성 피부에 최적화된 '제주조릿대 영양 마스크'가 그 주인공으로 피부 유형과 성별, 효과 등을 모두 고려한 제품이다.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마스크 팩임을 감안해 웰크론의 섬유기술이 담긴 고기능성 마스크 시트를 적용한 부분이다. 자체 개발한 마스크팩 시트는 피부밀착성이 우수하고 자극이 덜하며 피부흡수가 뛰어나 아토피나 피부 알레르기 환자, 유아 및 아동도 사용할 수 있다. 화장품사업본부는 세 가지 마스크 시트를 공개했는데, 초극세 섬유로 피부 속 미세 노폐물 제거에 탁월한 '나노섬유', 우유 단백질을 적용해 고보습 시트로 탄생한 '우유섬유', 토코페놀 함유 섬유로 항산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비타민이 함유된 '비타민섬유'를 활용한 마스크 시트다. 이정선 부장은 "예지미인 마스크 팩은 에센스를 시트 외부에 흡착시켜 만드는 기존 마스크 팩과 달리 에센스가 나노섬유 시트 자체에 함유돼 있어 사용자가 효과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안전성과 기능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바이오코스메틱 브랜드

최근 웰크론헬스케어 화장품사업본부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고민하는 섬세한 피부과학'이라는 철학을 담은 '셀미인(CELLMIIN)' 브랜드를 론칭했다. 기본에 충실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한 셀미인의 화장품은 2017년 2월부터 출시를 앞두고 있다.

우선 2월, 첫 공개될 제품은 보습장벽 아토피 라인인 '필라그린(Feel-A-Green)'이다. 로션, 크림, 클렌저로 구성된 필라그린 라인은 피부세포 속 천연 보습인자의 생성과 보호를 통해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원리로 아토피성



제주도에서 찾은 천연자연재료 마스크 팩 시리즈 (왼쪽부터 유자, 동백, 조릿대, 용암해수 성분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셀미인(CELLMIIN)의 신제품 필라그린(Feel-A-Green) 2017년 2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interview



웰크론헬스케어 화장품사업본부 이정선 부장

최근 아토피 피부염 등과 같은 환경성 질병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웰크론헬스케어는 보다 적극적으로 독자적 천연소재의 연구 및 개발에 힘쓰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체 친화적인 자연소재와 기술력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을 모두 갖춘 올바른 화장품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도 웰크론헬스케어 화장품사업본부는 사람들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피부에도 효과적이다. 화장품사업본부는 제품개발에 앞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찾아내 접근하고자 했고, 각질세포 속 표피단백질의 분화가 부족하면 피부장벽이 약해진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춰 다각도의 연구를 시도했다. 그 결과 개발과정에서 철저한 성분 검토를 통해 유해한 성분을 분리, 제거해 피부의 자극을 극소화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화장품을 희석한 물에서 새싹이 자라나는 이례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건강한 화장품임을 눈으로 증명해 냈다.

웰크론헬스케어는 필라그린 라인의 출시에 이어 안티폴루션 미세먼지 라인 등 다양한 기능의 상품 출시를 차례로 기다리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먼저'라는 화장품사업본부는 올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제공하기 위한 화장품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들의 진정성을 담아 탄생한 첫 화장품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



웰크론강원의 지금 이 순간, HRSG 사업을 말하다



웰크론강원 **박제명** 상무

웰크론강원은 2006년 10월, 이란 키슈 모발레드사(QESHM MOVALLED Company)와 96억 원 규모의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웰크론강원은 35MW급 G/T 후단에 설치되는 HRSG 1기 및 23MW급 G/T 후단의 HRSG 2기 등 총 3기의 배열회수 보일러를 공급하고 제작, 납품 및 시운전 기술지원까지 모든 공정을 담당하게 됐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HRSG 부문 국내기업 첫 수주'라는 기록과 함께 발전플랜트 사업으로의 화려한 출발을 알린 웰크론강원의 HRSG 사업을 살펴보자.

웰크론강원의 저력, HRSG사업에서 빛을 발하다

웰크론강원은 에너지플랜트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황회수설비 등 화공설비 분야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전플랜트 사업에 뛰어 들었다. 이란에서 수주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업의 다각화를 꾀하고 있는 웰크론강원은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이후 이란 내 HRSG 분야에서는 국내 플랜트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수주를 이뤄냈다. 웰크론강원이 수주한 파사르가드 키슈 복합 발전플랜트(Pasargad Qeshm Combined Cycle Power Plant)는 이란 남부 키슈섬, 호르무즈간주 키슈자유지역 내 정유시설과 담수설비에 전력과 증기를 공급하게 된다. HRSG사업은 향후 웰크론강원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사업인 만큼 웰크론강원의 임직원들은 2018년 준공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파사르가드 키슈 복합 발전플랜트를 만들어가다

모든 설계와 제작, 납품, 시운전에 이어 기술지원까지 도맡은 웰크론강원은 중동의 지역적 특성에 맞춰 설비를 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은 인구집약적인 국가와 달리, 드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며 전력사용량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중동 및 동남아시아 지역의 특성상 증소형 설비를 여러 대 설치해야 송배전 손실을



줄일 수 있다. 특히 파사르가드 키슈 복합 발전 플랜트에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가 아니라, 친환경 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HRSG를 설치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을 낮추는 등 대기환경 오염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파사르가드 키슈 복합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박제명 상무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이란 발전플랜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웰크론강원이 공급하는 이란 발전플랜트의 HRSG에는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다양한 용량의 가스터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설비의 용량을 최적화 하고, 효율적인 배치를 위한 레이아웃 구성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웰크론강원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자랑했다.

지난 2011년 이란에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을 수주, 2012년 1,065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웰크론강원 이란 복합 발전플랜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바탕으로 눈부시게 도약할 웰크론강원의 HRSG 사업을 주목해 보자.



HRSG 란?

HRSG(Heat Recovery Steam Generator, 배열회수보일러)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가스터빈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배기가스를 회수해 증기를 발생시킴으로써 증기터빈을 구동하는 장치로,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고 대기환경의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의 핵심설비를 말한다.



“HRSG 사업은 웰크론강원의 사업다각화 및 내실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웰크론강원 뿐만 아니라 그룹 전체의 발전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웰크론강원의 HRSG사업을 응원해 주세요.”



종합건설업 진출 선언 이후
매년 성공적인
수주 기록을 쌓아온
웰크론타렉 건설사업본부는
2016년 수주금액
986억 원을 달성했다.
이는 2016년 수주목표 780억 원을
126% 초과 달성한 수치다.
올해로 창립 23년 차를 맞이하는
웰크론타렉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2012년 건설사업본부를
출범하여 종합건설업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성장을 거듭하는
웰크론타렉의 종합건설사업의
도약기를 들여보자.

웰크론타렉 건설사업본부 이영식 부사장

웰크론타렉 건설사업본부, 중견 EPC 기업으로의 도약을 이끈다

03 웰크론타렉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웰크론타렉의 절대 명제는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하지만 진정 중요한 기술력은 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더 크게 발전시켰을 때 우리는 그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의 미션처럼, 항상 고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면 저절로 밝은 미래가 다가오지 않을까요?

종합건설사업으로 옛본 웰크론타렉의 중장기 플랜

웰크론타렉 건설사업본부 이영식 부사장은 2016년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실적과 함께 종합 EPC 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을 확인했다. 2012년 사업다각화를 통해 탄생한 웰크론타렉 건설사업본부는 물류센터 및 산업시설(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병원, 클린룸, GMP 등 다양한 분야 수주를 통해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으며, 2016년에는 종합건설사업 수주금액 986억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이와 같은 웰크론타렉 건설사업본부의 성장을 이끈 견인차 이영식 부사장은 앞으로도 건설사업본부의 종합건설사업을 통해 웰크론타렉의 밝은 미래를 꿈꾸고 있다.

이영식 부사장은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사업은 설계(Engineering), 조달(Procurement), 시공(Construction)의 첫 글자를 딴 이름처럼 설계부터 조달, 시공을 모두 도맡는 턴키(turn-key) 사업으로, 각 분야별 역량에 따라 결과가 크게 차이 난다”며 EPC 분야별 업무역량 강화를 중장기 플랜으로 가장 먼저 꼽았다. 또한 효율적인 조달 시스템의 구축과 고객 중심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제안능력 향상, 우수한 공사관리능력 등의 발전을 통해 기술금융복합기업으로의 도약을 다짐했다.

기술금융복합기업으로의 청사진

이영식 부사장은 EPC 사업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력이 집약된 사업분야라 말한다. 시공기술력뿐만 아니라 기획, 설계, 금융, 유지관리 분야까지 요구하는 국내시장의 니즈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EPC 사업이라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짧은 업력에도 불구하고 EPC 사업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인 만큼 EPC 사업은 향후의 웰크론타렉을 책임질 대들보라 할 수 있다.

설계와 감리, 시공을 맡는 턴키사업에서 성장해 사업 분야를 확장, EPC 사업으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웰크론타렉 건설사업본부는 마케팅과 기획, 금융의 기술을 더해 기술금융복합기업을 꿈꾸고 있다. 웰크론타렉은 향후 자체 기획개발사업을 통해 1군 종합건설사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웰크론타렉의 성장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영식 부사장은 그 이유를 ‘사람’에서 찾았다. 그는 건설사업본부의 경쟁력을 지식과 기술, 신뢰로 무장한 맨파워로 뽑았다. “EPC 프로젝트는 기획단계부터 준공, 시운전까지 장기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명이 주도하기보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가능하죠. 웰크론타렉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6년 수주목표를 126% 달성한 건설사업본부의 저력과 웰크론타렉 임직원들이 만들어갈 앞으로의 길을 기대해본다.

“웰크론타렉은 2016년 높은 실적을 올렸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향후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도 영업활동을 넓혀 세계최고의 일류기업이 되는 날까지 우리의 도전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신한복지 사옥



웰스바이오 마곡연구소



아리온테크놀로지 사옥

“EPC 프로젝트는 설계부터 시공까지 구성원들의 화합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한 명이 주도하기보다 모두가 한 방향으로 집중하고, 맡은바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있어야 가능하죠. 웰크론타렉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웰크론인을 위한 이영식 부사장의 3문 3답

01 웰크론타렉 건설사업본부의
향후 목표는?

글로벌 EPC 회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2020년 업계 100위권 진입, 2028년 업계 50위 진입을 목표로 임직원이 혼연일체 되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02 이영식 부사장님만의
2017년 다짐은?

해마다 개인적인 작은 목표를 세워 도전하곤 합니다. 2017년에는 하던 일들을 점진적으로 이양하고 새로운 또는 가보지 못한 시장에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폭염을 뚫고 전진한 웰크론그룹 2016 야간행군



야간행군을 실시한 2016년 8월은 기상청 분석결과 폭염일수가 역대 가장 많고, 강수량은 가장 적었던 것으로 기록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다. 행군 전날까지만 해도 최고 35도에 이르는 높은 기온 때문에 행군으로 인한 열사병 환자발생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러나 26일 야간행군 당일, 웰크론인들의 의지를 알아챈 것처럼 선선한 날씨로 변했다. 무더위도 날려버린 웰크론인들의 야간행군을 들여다보자.

최대의 목표는 완주!

이번 야간행군은 '전 구간 참여(30km)', '반환점부터 참여(15km)' 2개 구간을 설정, 체력에 따라 참여 시작구간 및 완주목표를 달리 해 모든 임직원이 목표로 한 코스를 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목표 달성의 성취감, 기초체력증진, 팀워크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

행군출발 전 직원들은 구로동 본사 옥상에 모여 팀 별로 준비해온 구호를 선보이며 준비운동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활기찬 걸음으로 철산교로 이동해 그룹구호를 외치며 다함께 목표달성의 의지를 다졌다. 이후 회장님을 선두로 본격적인 행군을 시작했다. 다소 선선해진 날씨였지만 여전히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직원들은 수건을 물에 적서 목에 두르거나 머리에 쓰는 등 자신만의 방법으로 더위와 싸웠다. 걷는 도중 동료의 다리에 파스를 뿌려주고 마사지를 도와주며 완주를 독려하는 직원들의 훈훈한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go, go! welcron group

웃음꽃으로 마무리한 야간행군, 어둠을 밝히다

반환점인 양화교에 도착해서는 컵라면과 삼각김밥으로 배를 채웠다. 직급고하, 가족사 구분 없이 한데 모여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도 행군이 처음인 신입사원들이 행여라도 무리할까 체력상태를 꼼꼼히 챙겼다. 각 팀별로 단합을 테스트하는 단어 미션도 실시했다.

'G, O, W, E, L, C, R, O, N, G, R, O, U, P'를 완성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웰크론인들은 언제 지쳤냐는 듯 재빨리 줄을 서고 모양을 확인하느라 곳곳에 활기가 넘쳤다. 반환점을 돌아 다시 본사로 향하는 길, 점점 무거워지는 발걸음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고, 신나는 노래를 들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저물고 어둠이 내려앉았다. 선두로 도착한 회장님과 지원조 임직원들의 환호 속에 도착한 옥상. 직원들은 이곳에서 회장님의 격려사와 함께 이번 행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관람하는 것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Tip

2016 야간행군 에너지이저 '웰크론 리빙상품본부'

2016년 야간행군 미션 우승을 축하드립니다.

팀원들과의 단합, 순발력, 창의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슬기롭고 즐겁게 돌파해 나가자는 의미로 진행된 야간행군과 미션에서 뛰어난 팀워크를 자랑한 '웰크론 리빙상품본부'. 출발 전부터 발랄한 팀 구호로 주목을 받았던 만큼 미션 완수와 완주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웰크론인 모두에게 완주의지를 북돋워 준 '웰크론 리빙상품본부'는 상금으로 50만 원이 수여되었습니다.



무한도전 새내기, 신입사원이 말한다!



웰크론강원 기술본부 상세설계팀

이준호 사원 (공채 3기)

“한 발, 두 발 함께 걸어나가며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배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야간행군에 처음으로 참여하다 보니 완주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행군 당일, 각자의 방식으로 준비하는 선배님들의 모습과 세심한 보살핌에 완주에 대한 의지를 다지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기수를 맡았던 저는 조의 선두에서 행군속도를 맞추는 역할을 맡았기에 '절대 낙오하지 말아야겠다'는 책임감과 함께 행군을 시작했습니다. 야외에서 함께 걷기 때문일까요? 평소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과도 담소를 나눌 기회가 되었습니다. 농담을 섞이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고, 평소의 고민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한 걸 가까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행군이 이어질수록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쉬어가며, 회장님께서 힘찬 구호로 직원들의 사기를 올렸고 모두가 힘을 내어 앞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30km라는 거리가 누군가에게는 쉬운 코스일 수도 또 누군가에게는 힘든 코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같이 발걸음을 맞추었습니다. 서로의 짐을 들어주기도 하며 뒤에선 밀어주었고, 앞에선 당겨주었습니다. 모두와 함께 완주한 이번 야간행군은 저에게 가족사로서 유대감을 느끼게 해준 뜻깊은 행사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열정으로 흥진!

준우승의 쾌거를 달성하다

2016 KOSDAQ Baseball Challenge 준우승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빅사이팅 이천베이스볼파크에
모인 웰크론그룹 야구동호회 '웰크론 위키스'는
'2016 KOSDAQ Baseball Challenge'에 참가했다.
코스닥 협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2016년에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코스닥 기업 간 화합을 도모하고,
초·중학교 운동부 후원을 하고자
마련된 이번 대회에 웰크론그룹 야구동호회
'웰크론 위키스'가 나섰다.

웰크론 위키스의 저력을 뽐내다

장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그 어느 야구팀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하는 '웰크론 위키스'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여러팀들과 겨뤄보며 경험을 쌓고자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3주 남짓 촉박한 시간이었지만 리그 경기에 임했던 경험,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꾸준한 연습으로 실력을 다져왔기에 침착하게 경기에 임했다. 오전 11시 40분, 웰크론 위키스와 이오테크닉스의 준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위밍업 후 힘찬 구호와 함께 차례대로 타석에 오른 선수들



은 평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활기 넘치는 경기를 치렀다. 조바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일까? 연이은 안타와 득점을 기록하며 환상의 팀워크를 자랑했다. "한 번만 데!" 동료들의 힘찬 응원 속에서 6점 차로 스코어를 벌리며 15대 9로 이오테크닉스와 준결승전을 마무리했다.

성장하는 '웰크론 위키스', 다음 목표는 우승!

준결승전 이후 점심과 함께 쉬는 시간을 가진 웰크론 위키스는 다음 경기를 위해 1시간여의 짧은 시간에도 우승을 향한 열정을 쏟았다. 쌀쌀한 날씨에 근육이 굳을까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풀었고, 혹여 발걸음이 무거워질까 점심도 거르며 다음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그 사이 웰크론의 응원석에는 응원단이 준비한 먹거리와 임원진들의 방문으로 활기찬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었다.

15시 정각, 웰크론 위키스의 맞은편에 상대팀인 누리텔레콤이 들어서며 결승전이 시작되었다. 응원단의 힘찬 응원 소리와 승리를 다짐하는 동료들과의 하이파이브, 공략법을 끊임없이 나누는 목소리는 결승 내내 빅사이팅 이천베이스볼파크를 울렸다. 안타 4개와 2점 홈런의 저력을 보여 주며 불꽃 튀는 경기를 치른 웰크론 위키스는 아쉽게도 결승전에서 패배하며 준우승의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데 만족해야만 했다. "힘내라는 응원의 소리가 있어 준우승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이번 대회의 소감을 밝힌 권형준 대리는 새롭게 감독직을 수행할 박범진 주임과 함께 우승을 향한 포부를 다짐했다.



- ▶ 준우승 상금을 전달받고 즐거워하는 위키스 선수단
- ▼ 웰크론 위키스의 든든한 조력자, 이영규 회장의 응원



interview


웰크론 대리점영업팀
박성현 과장

회사에서 지원하는 야구시합이라 더욱 힘이 납니다. 관심과 집중을 받아 그만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흥겨운 응원이 있어 경기를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강 수비! 최강 웰크론 위키스!





아빠는 파티시에? 엄마를 위한 부자의 깜짝 크리스마스 파티

웰크론 기술연구소 응용제품연구팀
권은희 부장 가족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내, 권은희 부장을 위해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는 남편 이용권 씨와 아들 영세. 서투르지만 애정을 가득 담아 포근하게 구워낸 'made by 권 패밀리' 스타일의 크리스마스 컵케이크를 맛볼 수 있는 케이크 공방으로 찾아가 보자.

도심 속에 숨은 케이크 공방

평소 자연 휴양림과 캠핑, 공원 등에서 야외활동을 즐긴다는 권은희 부장 가족은, 갑작스레 추워진 날씨에 서울 도심 속에 자리 잡은 케이크 공방을 찾았다. 남편 이용권 씨는 아들 영세와 함께, 아내에게 평소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크리스마스 컵케이크로 전달하는 깜짝 파티를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맛별이 부부로 항상 바쁜 시간을 보내느라 가족들과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거나 함께 하는 시간이 항상 부족했다”며 미리 준비해온 앞치마를 꺼냈다. 사소한 준비물까지 꼼꼼히 챙겨 온 모습에서 이용권 씨의 설렘을 엿볼 수 있었다. 앞치마를 착용하고 손을 씻으며 컵케이크 만들 준비를 마친 부자는 반죽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

차분하고 꼼꼼한 성격의 아들 영세는 계란과 버터, 밀가루 등 반죽에 들어갈 재료를 하나, 둘 챙기며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했다. “아빠, 여기가 덜 섞였어요.” 아들 영세의 코치에 남편 이용권 씨는 분주히 손을 놀렸다. 반죽에 덩어리진 부분은 없는지, 설탕이 버석하게 남은 부분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눈여겨 본 꼼꼼쟁이 부자의 컵케이크는 오븐 속에서 노릇노릇하게 익어갔다.



엄마를 위해 준비했어요!

권은희 부장은 웰크론 기술연구소 응용제품연구팀에서 기능성 침구 개발부터 PTFE 인공혈관 개발, 제품 분석 및 지원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의 개발을 위해 매일 공부하고 알아 가야 하는 업무인 만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가족들을 위해 요리를 즐겨 한다. “아들은 간장 양념 불고기 떡볶이를, 남편은 오징어가 가득 들어간 해물 부추전을 좋아해요. 하지만 특별한 날에는 케이크나 달콤한 디저트를 찾고는 합니다.” 가족들의 입맛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을 만큼 세심한 권은희 부장은 늘 가족의 입안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한다. “오늘은 엄마에게 컵케이크를 선물할 거예요”라며 작은 손으로 컵케이크를 장식하는 영세는 엄마 권은희 부장이 좋아하는 눈사람을 빼먹지 않고 장식했다. “자 영세야, 여기 직접 달아봐!” 남편 이용권 씨는 직접 만들어온 가랜드(천장이나 테이블을 장식하는 소품)를 아들 영세에게 쥐어 주었다. 직접 만들어 조금은 삐뚤삐뚤한 가랜드지만, 두 팔 단단히 아들을 앓고 찬장 이곳저곳을 장식하는 부자의 모습에선 권은희 부장을 향한 애정이 가득했다.



초콜릿 향기를 품은 크리스마스 컵케이크

아들 영세와 남편 이용권 씨의 진심이 가득했기 때문일까. 은은하게 퍼지는 초콜릿 컵케이크의 향기를 따라 권은희 부장은 아빠와 아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 장소에 도착했다.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장식들과 크리스마스 컵케이크의 등장엔 깜짝 놀란 권은희 부장은 컵케이크에 촛불이 붙여지는 그 순간까지도 얼굴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사랑해요!” 남편과 아들의 힘찬 고백과 함께 촛불을 끄는 모습에서 권은희 부장 가족의 단란함을 엿볼 수 있었다. 향긋한 버터향과 달콤한 초콜릿의 맛, 애정만큼이나 폭신폭신한 컵케이크 온도를 느끼며 하나씩 컵케이크를 맛있게 먹는 권은희 부장 가족들의 얼굴에는 계절의 온도가 무색할 만큼 따뜻한 힘이 담겨 있었다.

66

항상 존중해주고, 이해해주는 아들과 남편이 있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만큼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99



권은희 부장은 가족과 함께 컵케이크를 한 입씩 베어 먹을 때마다 웃음꽃을 피웠고, 엄지를 척! 들어 올리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우리 아들과 남편이 만들었다니! 파티시에 해도 되겠어!” 권은희 부장의 감탄에 부자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지치고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한다는 권은희 부장은 “항상 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공감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다음에는 제가 남편과 아들을 위한 깜짝 파티를 열어あげ겠어요”라며, 고마운 마음을 부자에게 전했다. 가족의 사랑이 담겨 더욱 달콤했던 크리스마스 컵케이크를 나누는 권은희 부장 가족의 깜짝 파티는 도시의 추운 겨울밤을 더욱 환하고 따뜻하게 밝혔다.



아빠의 간단 Recipe

초콜릿 컵케이크(4인 기준)
주재료 : 초콜릿,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버터, 달걀, 우유, 설탕, 소금



계란 노른자에 소금과 설탕을 조금씩 넣어 넣어가며, 반죽이 노란색에서 미색으로 바뀔 때까지 젓는다.



반죽에 밀가루와 베이킹파우더, 초콜릿을 넣고 덩어리가 생기지 않도록 젓는다.



취향에 따라 코코아 파우더 및 견과류를 추가 한다.



유선지를 깎 컵케이크 판에 80% 정도만 차도록 담는다.



170°C로 10분간 예열된 오븐에 넣고 20~25분을 기다리면 컵케이크가 완성된다.

01
행복을 파는 가게

SESA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 7층에 자리 잡은 세사(SESA) 매장. 지난해 2월, 백화점 오픈과 동시에 문을 연 매장이지만 벌써 단골손님들이 많이 생겨날 정도로 인기다.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장

“매니저님, 지난번에 구매했던 이불이 끝내줬어요! 아이들 이불도 사려고 하는데 추천해줘요.” 상품 만족도가 좋았던 고객이 카피 한 잔을 들고 김운하 매니저를 찾았다. ‘세사 제품을 한 번도 사용해본 적 없는 사람’은 있어도, 센터시티점에서 세사제품을 구매한 뒤 재방문을 하지 않은 고객은 없다는 김 매니저. 그만큼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는 물론, 그녀에 대한 신뢰도도 높다. “백화점에 입점 된 매장이다 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관심을 확보할 수 있어요. 특히 매장이 침구색션 도입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지나가는 고객들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김운하 매니저는 변화하는 트렌드에 따라 침구 디스플레이를 자주 바꿔가며 추천 제품을 가장 앞쪽에 배치한다고. 특히 세사 제품은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컬러 덕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운 좋게도 저희 매장은 ‘매장 위치’, ‘직원과 고객의 소통’, ‘상품의 우수함’이라는 삼박자가 잘 갖춰진 것 같아요.”

똑똑한 고객이 선택하는 브랜드, 세사(SESA)

김운하 매니저는 신상품이 출시되면 판매 전에 자신이 꼭 사용해 본다고 한다. “판매하는 제가 세사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기에 상품을 가장먼저 체험해보곤 해요. 그리고 상품의 장점을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노력해요.” 요새는 SNS나 온라인을 통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매장을 방문하는, 일명 ‘똑똑한 고객’이 많다. 원단의 재질까지도 꼼꼼히 살펴보고 상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다고. 특히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은 ‘키즈세사’ 브랜드가 특성화된 매장이라 영유아용 상품 정보까지도 상세히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아토피 피부염, 천식 등과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에 맞춘 기능성 침구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정보 전달로 고객에게 신뢰감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고객에게 세사의 우수함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김운하 매니저의 바람대로, 모든 세사 매장에 고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기를 기대한다.

세사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사용해 본 사람은 알아요, 세사 침구가 얼마나 특별한지!



세사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공원로 227(불당동)
갤러리아 센터시티 7층
문의: 041.412.9459



02
행복을 파는 가게

세사리빙 천안 성정점 세사리빙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세사리빙 SESA LIVING

비염이 있는 큰 아이를 위해 기능성 침구를 고르다 세사리빙(SESA Living) 브랜드를 처음 만나게 됐다. 박은숙 점장. 세사리빙의 고객에서 세사리빙 대리점을 운영하게 되기까지, 박은숙 점장의 ‘세사리빙 사랑’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따뜻함이 묻어나는 천안 성정점

침구 브랜드의 기능성 침구란 침구는 모두 사용해봤다. 하지만 아이들의 비염증상 완화에는 효과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세사리빙 제품을 사용하게 됐고, 증상이 호전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품질의 우수성에 감탄했다고. “세사리빙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원단의 품질이라고 생각해요. 웰로쉬 원단으로 제작된 세사리빙 침구는 합리적인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만큼, 다른 침구 브랜드의 제품과 견주어 보아도 확연히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사리빙과 인연이 된 박은숙 점장은 상품의 경쟁력을 확신하고 대리점 운영을 시작했다. 천안 성정점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있지만 침구와 연계된 상권이 조성돼 있지 않아 최적의 입지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고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박 점장의 따뜻한 응대와 더불어 상품에 대한 높은 신뢰도 때문이다.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지 않는 게 세사리빙을 선택한 거예요.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고객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침구

단지 매장을 둘러보러 온 고객일지라도 박은숙 점장은 최선을 다해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한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고객에게 잘 어울리는 ‘맞춤 상품’을 추천하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고 말한다. “상담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하려고 해요. 침구도 인테리어 소품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커튼, 침대 프레임, 벽지 등의 색상과 디자인을 물어보고 이에 어울리는 침구를 함께 고릅니다. 그리고 고객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최종적으로 고객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 상품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런 섬세함이 천안 성정점의 자랑거리다. 세사리빙 침구가 매장에 디스플레이 되어있을 때 뿐만 아니라, 고객의 침실에 배치되었을 때도 돋보이기를 바라는 박은숙 점장의 자그마한 바람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은숙 점장은 세사리빙의 매니아층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발 빠르게 세사리빙 상품을 전파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세사리빙 천안 성정점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308
문의: 041.592.7989





키 큰 갈대와 붉게 물든 단풍으로 뒤덮힌 공원에 웰크론그룹 사진동호회 'TAPS(Take a Picture and See)'가 출사를 나섰다. 한 해마다 짧아지는 가을이 아쉬웠다는 웰크론그룹 TAPS는 이번 출사지를 가을 냄새가 물씬 풍기는 철산교 인근 공원으로 선택했다. 회사 근교에 숨어있는 보석 같은 이곳에서 진행된 웰크론그룹 TAPS의 출사를 웰크론인에서 따라나섰다.



***Tip**

웰크론그룹 TAPS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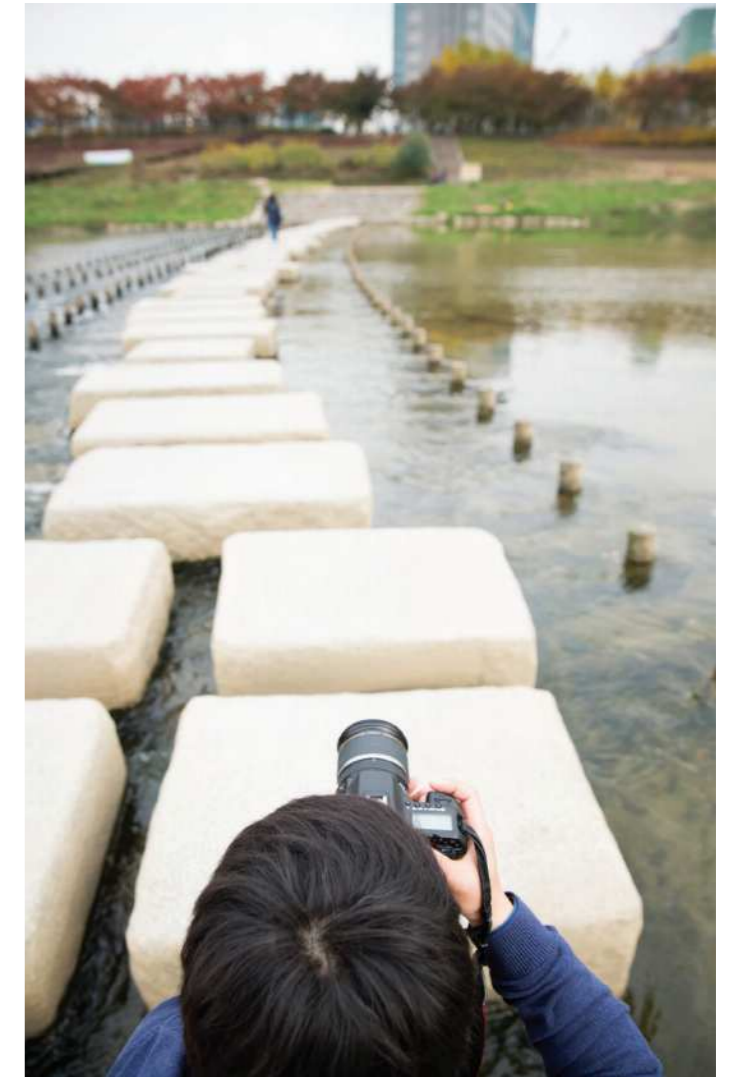
사진에 관심 있는 웰크론그룹 모든 가족사 직원이 가입 가능한 사진 동호회 월 1회 이상 모임을 가지며 정기적인 출사 이외의 모임도 갖는다. 사진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사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한 만큼 사진을 즐길 준비가 되어 있다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가입문의

웰크론한텍 경영지원팀
김병조 과장(내선 6928)



찍고,
보고,
느끼는
사진동호회
TAPS



2016년 7월에 창단한 웰크론그룹의 사진동호회 TAPS는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동호회다. 동호회의 이름부터도 사진을 즐기고자 하는 뜻이 가득 담겨있다. "TAPS는 'Take a Picture and See'의 줄임말입니다. 번역하면 '찍고 보자!'는 의미인데요, 말 그대로 직접 찍어보고,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보는 눈을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지었죠."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많이 찍어보고 또 그만큼 많이 봐야 한다는 TAPS의 철학을 전한 웰크론한텍 경영지원팀 김병조 과장은 사진동호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총 13명의 웰크론그룹 직원으로 구성된 TAPS는 웰크론한텍에서 발족했지만 웰크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팀원들의 의견에 따라 정기 출사를 나서거나, 소규모 모임을 종종 갖기도 한다는 TAPS는 사진을 주제로 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는다. 사무실이 아닌 야외 공간에서 만나 매번 색다른 추억을 쌓고 남기는 것도 사진동호회만의 매력이다.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곳을 가보진 못했지만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이나 해리 예술마을, 하늘공원 등으로 매월 1회 씩 출사를 나가고 있습니다. 사진동호회지만 출사의 묘미! 맛집 투어에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출사 현장 스케치, 가을을 담다

푸릇했던 잎사귀들이 지고 나무들이 노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11월, TAPS 팀원들은 가을을 담고자 회사 인근 철산교 공원으로 향했다. 카메라를 목에 걸고 저마다의 풍경 사진을 담는 모습에는 사뭇 진지한 분위기가 풍겼다. 카메라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동호회인 만큼 세세한 테크닉은 부족하기 마련, 카메라 조작이 서툴러 헤매는 경우도 잦다.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조작법을 익히느라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팀원 모두가 조금씩 사진에 대해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선생님이고 학생이죠.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나중엔 깜짝 놀랄 작품도 찍게 되겠죠?"

사진을 주제로 고심하던 분위기도 잠시, 팀원들은 카메라를 마주 대며 서로의 장난스러운 모습을 담아가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점프" 몸을 아끼지 않으며 점프 컷을 소화하고, 갈대가 무성해도 자란 곳을 헤치며 명당을 찾아 셔터를 누르는 그들은 누구보다 가을을 즐기고 있었다. 서로의 사진을 보며 웃음꽃을 피우고 조언을 아끼지 않는 웰크론그룹 사진동호회 TAPS는 아날, 추억의 한 페이지를 늘려갔다.



interview

웰크론한텍 경영지원팀
김병조 과장

'웰크론그룹 TAPS'가 야구동호회에 이어 두 번째로 <다함께 예체능> 코너에 소개 되었습니다. 사진을 잘 찍는 것보다도 즐기는 것을 우선하는 사진동호회인 만큼 '사진'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방방곡곡 숨어있는 맛집을 찾는 재미까지 따라오는 TAP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1

▶ TAPS의 정상원 대리! 자세와 장비는 프로 못지않다
진주연 작품 (웰크론한텍)



▼ 할리우드 영화의 한장면같은 역세, 우리나라에도 이런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김병조 작품 (웰크론한텍)

03



02

▶ 하늘을 담은 하늘공원의 호수를 촬영했습니다
이정아 작품 (웰크론한텍)

04

▶ 나는 누구일까요? 야외에서 만나는 동료는 개구쟁이 같습니다
김하늘 작품 (웰크론한텍)



05

▶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이었는데 줄도 영키지 않고 시원스레 날던 연. 어린시절 수없이 연줄을 끊어먹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이현숙 작품 (웰크론한텍)

06

▶ 해가 절묘하게 걸린 순간을 담았습니다. 저 수도꼭지를 열면 햇빛이 쏟아질까요?
한용훈 작품 (웰크론한텍)



07

▶ 임진각평화누리공원에 위치한 바람의 언덕. 붉은 바람개비들은 바람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정상원 작품 (웰크론)

웰크론&예지미인 24기 주부모니터 체험후기

건강을 생각한다면, 예지미인!

여성의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하는 웰크론헬스케어는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 3종'과 '예지미인 여성 청결제, 여성 청결티슈'를 선보였다. 2017년 2월 출시를 앞둔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 3종'과 간편한 사용감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는 '예지미인 여성 청결제, 여성 청결티슈'의 생생한 후기를 간간한 주부 소비자들을 통해 들어보자.

01

예민한 피부를 지켜주는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으로 피부에 휴식을 선물합니다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 3종 주부모니터 전현주 주부



평소에 피부가 민감하고 예민해서 천연화장품, 아토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는데 이번에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 3종 제품을 만나 사용해 보고 피부가 편안하게 진정됐음을 느꼈습니다. 평소에 클렌저는 자극 없는 워터클렌저를 사용하고 따로 클렌저 제품을 사용하지 않아 순한 제품을 찾으면서도 확실한 세정력을 원했는데

이번에 사용해본 필라그린 클렌저가 제격이었습니다. 필라그린 클렌저는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거품이 나서 피부에 자극 없이 말끔하게 클렌징이 되었고 유칼립투스과 비슷한 허브향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세안 후 얼굴이 당기는 느낌 없이 촉촉함을 느끼면서 클렌징만으로도 보습이 된다는 점을 체험했습니다.

클렌징과 함께 체험한 필라그린 로션은 부드러운 제형에 한 번 반하고 매끄러운 발림성에 두 번 반한 제품이에요. 타사 아토피 화장품을 사용해 보면 끈적거리어서 사용을 꺼리게 되는데 필라그린 로션은 산뜻한 제품을 좋아하는 저의 기대감을 만족시켰습니다. 마지막 보습 단계에서 필라그린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었는데 로션의 수분을 크림이 꼭 잡아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로션 후에 크림까지 사용하면 얼굴이 답답해서 자주 손이 가곤 했는데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 제품은 이러한 피부자극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하고도 같이 사용해도 될 만큼 순하고 부드러운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 온 가족이 사용하면서 튼튼하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극은 줄이고 편안한 피부 휴식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꼭 사용해봐야 하는 제품이 아닐까요?”



* 제품소개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 3종은 아토피와 민감성피부를 비롯해 건성피부와 겨울철 지성피부까지 고려한 보습 제품입니다. 천연제품을 사용해 피부 표면장벽의 저항력을 기를 수 있는 셀미인 아토피 필라그린 3종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온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보습라인입니다.



02

센스쟁이 엄마가 딸과 함께 쓰는 여성 필수품, 예지미인 여성 청결제!

예지미인 여성 청결제, 여성 청결티슈 주부모니터 김양희 주부



올해 가을, 제 큰딸이 드디어 완전한 여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딸이 초경을 시작하니 제가 초경을 할 때보다 더 많이 걱정되고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첫 초경을 좋은 기억으로 남길 수 있을까 고민하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제가 사용하는 예지미인 생리대와 청결티슈를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청결티슈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제품이 되었기에 딸에게 처음부터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더군요.

예지미인 청결티슈를 잘 몰랐을 때는 '그냥 물티슈와 뭐가 달라?'라고 생각했지만 일반티슈와는 확연히 다른 사용감을 자랑했습니다. 청결티슈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생리대를 새로 바꾸어도 뭔가 찝찝하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생리기간 내내 찝찝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하면 생리기간 동안 산뜻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부드러운 촉감과 은은한 페퍼민트 향, 물에 잘 녹는 원단으로 바로 변기에 버릴 수 있다는 점 등 그야말로 여성을 배려한 세심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가볍게 휴대할 수 있고, 사용 시 깔끔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만들어줘서 참 고마운 제품입니다.

또한 저희 욕실에는 거품타입인 예지미인 여성 청결제도 갖춰져 있습니다. 100% 식물성 유산균 제품이라 믿고 안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성한 거품이 자극적이지 않아 샤워할 때 애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한방 향을, 딸아이는 허브 향을 좋아해 두 제품 모두 욕실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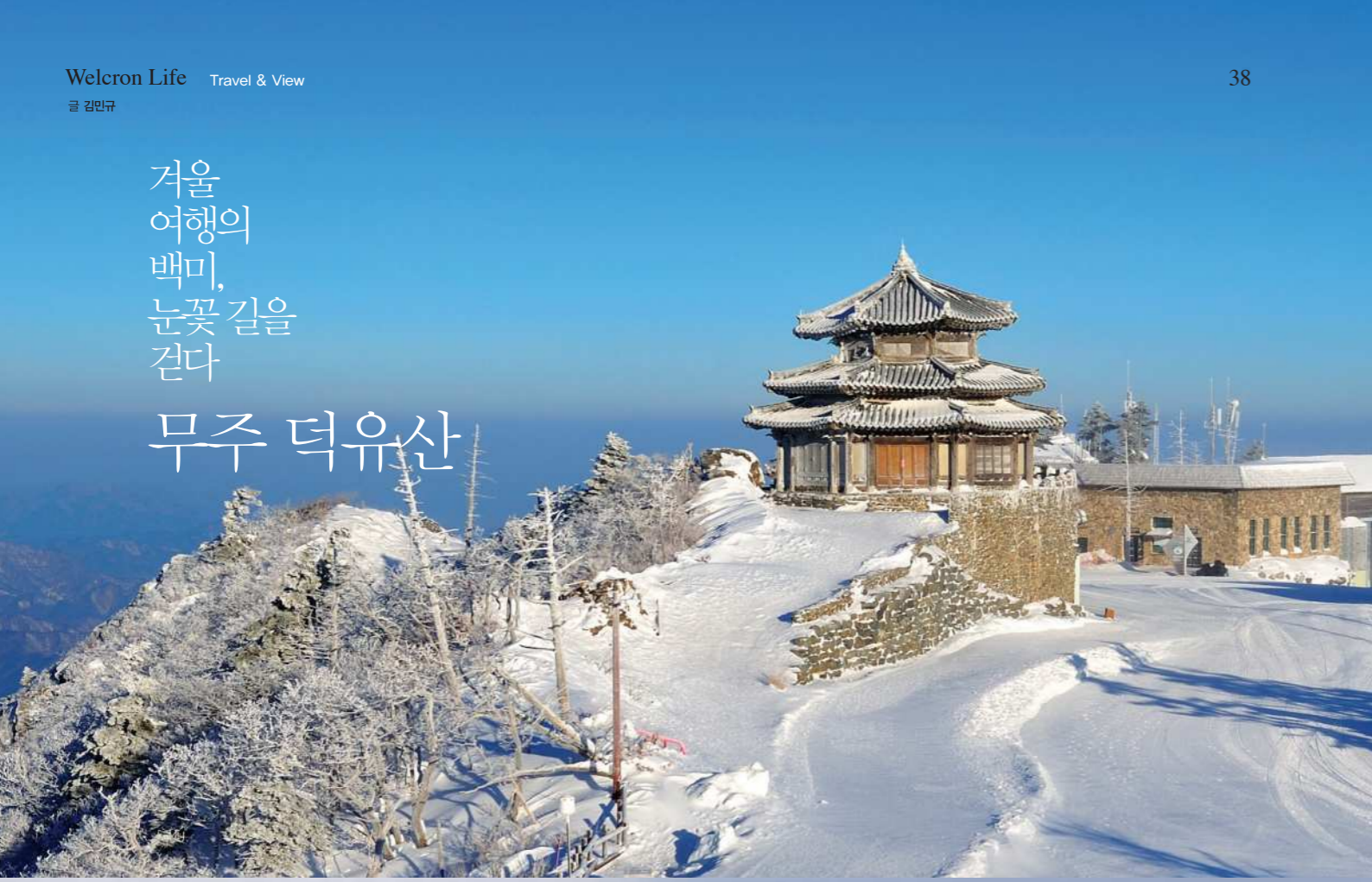
“샤워할 때는 예지미인 여성 청결제를, 외출 시에는 휴대용 청결제인 예지미인 청결티슈를 딸에게 권했더니 ‘우리 엄마는 센스쟁이’라고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조만간 둘째 딸에게도 센스쟁이 엄마라는 말을 들 때가 오겠죠?”



* 제품소개

예지미인 여성청결제는 풍부하고 부드러운 거품타입의 '한방 여성청결제'와 '허브 여성청결제'의 두 가지 종류로, 피부 저자극 테스트를 완료하여 민감한 여성의 Y존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한방 여성청결제는 강화 사지발쑈, 당귀, 익모초 등 여성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11가지 한방성분에 국내산 6년근 홍삼추출물을 새롭게 추가하여 피부 보습 효과를 높였고, '허브 여성청결제'는 청정 제주에서 자생하는 5가지 허브 성분과 8가지 천연 허브 에센셜 블렌딩 오일의 은은한 향이 첨가돼 사용 시 기분을 상쾌하게 해준다. **예지미인 여성청결티슈**는 거품이나 젤 타입으로 씻어내야 할 필요 없이 간편한 티슈 형태로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여성 F&B의 조절을 돕고, 생리 기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성 청결티슈에 포함된 페퍼민트 오일의 청량한 향은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상쾌한 느낌을 제공한다.

겨울 여행의 백미, 눈꽃 길을 걷다 무주 덕유산



봄에는 꽃놀이, 여름엔 물놀이,
가을에는 단풍놀이였다면 겨울엔 역시 눈이다.
스키나 눈썰매도 좋고
스케이팅나 얼음낚시도 좋지만
겨울 풍경의 진수는 겨울 산에 올라
눈꽃 가득한 상고대의 풍경과 마주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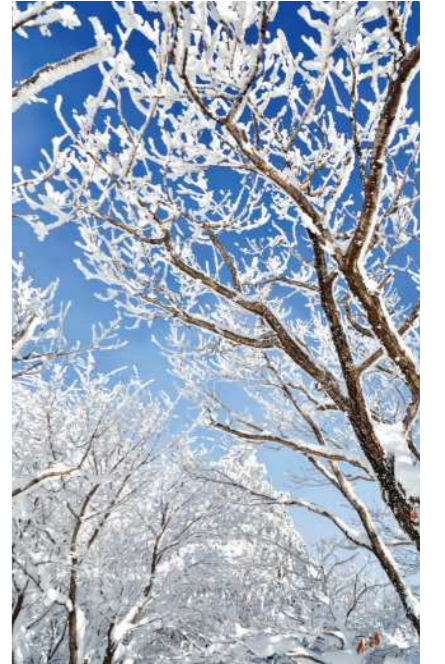


우리나라 눈꽃 여행의 베스트셀러 덕유산

덕유산은 국내 최고의 눈꽃 산행지다. 덕유산 향적봉의 높이는 1,614m로 남한에서는 네 번째로 높다. 특히 겨울내 상고대가 피어 있어 눈이 오지 않더라도 때 묻지 않은 순백의미를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상고대는 습기를 머금은 구름과 안개가 급격한 추위로 나무에 영겨 붙은 것으로 해발 1,000m 이상 고지에서 영하 6도 이하, 습도 90% 이상일 때 주로 피는 서리꽃이다. 밑으로 금강 줄기가 흐르는 덕유산은 이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겨울이면 다른 곳에 비해 유난히 눈도 많이 내린다. 그 풍경이 아름답지만 눈길을 헤치며 1,600m가 넘는 덕유산 정상을 오르는 일은 쉽지 않다. 물론 다리품을 팔아 정상을 오르는 맛이 제각이겠지만 무주리조트 안에서 곤돌라를 타고 오르는 방법도 있다. 힘들여 걷는 것과 달리 겨울 산의 하얀 속살을 여유 있게 감상하며 올라가는 맛이 이채롭다. 곤돌라를 타고 올라가며 맛볼 수 있는 장관이 있다. 겨울 산의 속살을 파고드는 듯 펼쳐지는 겨울 왕국의 풍경은 과연 백미라 할 수 있다. 곤돌라 승강장 밖으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온세상이 눈 천지다. 눈길에 닿는 곳마다 하얀 눈꽃이 부서질 듯 찬란히 빛나는 모습을 보며 발길을 옮기면 전망대가 보일 즈음에는 별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온가족이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겨울 산행길

곤돌라를 타고 오르는 길은 향적봉 바로 밑에 있는 설천봉까지다. 설천봉에서 내려 향적봉까지 오르는 데 쉬엄쉬엄 걸어 20분 정도 걸린다. 무엇보다 자연의 손길이 섬세하게 빚어낸 눈꽃 터널 사이로 걷는 맛이 그 만이다. 눈꽃 감상을 하며 향적봉 정상에 오르면 지리산 천왕봉과 반야봉을 비롯해 속리산 줄기까지 겹겹이 펼쳐진 능선이 한눈에 들어와 가슴이 탁 트인다. 겨울 산의 풍광을 제대로 맛보고 싶다면 중봉까지 꼭 걸어보자. 주목과 구상나무가 산행객들을 반겨준다. 설천봉에서 걸어온 만큼, 20분 정도면 중봉에 닿는다. 가는 길에 향적봉 대피소가 있다. 컵라면과 간식 등을 판매한다. 화장실도 있으니 급한 일은 해결하고 가자. 길이 가파르지 않아 남녀노소 걷기 무리가 없다. 설천봉행 곤돌라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행한다. 무주덕유산리조트로 내려오는 곤돌라는 오후 4시 반이 마지막이다. 향적봉까지 오를 생각이려면 늦어도 3시에는 설천봉행 곤돌라에 탑승해야 한다. 주말에는 곤돌라 줄이 아주 길어지니 부지런히 움직이는 편이 좋다.



이용 안내

덕유산국립공원 홈페이지: deogyu.knps.or.kr
곤돌라 운행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이용료: 성인 1만2천 원, 어린이 9천 원(양복), 성인 8천 원, 어린이 6천 원(편도)
문의: 063.320.7381

찾아가는 길

대중교통
서울 지역별로 무주리조트행 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무주버스터미널에서 무주리조트행 버스가 운행되고, 무주군 내 무주할인마트 앞에서 무주리조트행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승용차
경부고속도로-대전~충청 고속도로-무주IC를 빠져나와 좌회전-적상면삼거리에서 좌회전-사산삼거리에서 좌회전-치목터널-구천동 터널을 지나면 무주리조트

함께 둘러볼 곳

백련사
향적봉에서 백련사를 거쳐 구천동계곡으로 내려오면 겨울산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다. 덕유산 구천동 계곡 상류에 자리한 백련사는 구천동 골짜기에 있는 유일한 사찰로 신라 흥덕왕 5년(830년)에 창건되었다. 덕유산 정상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휴식처로 이름난 이곳은 주변 경치가 멋스럽다. 백련사 입구의 아치형 다리를 건너 일주문을 지나면 백팔번뇌를 상징하는 108개의 석조계단이 가지런히 뻗어 있다. 계단에 올라서면 넓은 마당에 대웅전을 비롯해 크고 작은 건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이곳에 들어서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진다.
문의: 063.322.3395

내 손으로 내 집 꾸미기!

홈인테리어 전성시대



최근 자신의 스타일과 취향대로 집을 꾸미는 '셀프 인테리어' 열풍이 거세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번거로움을 자처하는 것은 그만큼 집에 나를 투영하고픈 심리의 반영일 것이다. 셀프인테리어 열풍이 거세짐에 따라, 소비자는 붕어빵처럼 찍어낸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내부 구조에 변화를 주도하며 개성을 마음껏 뽐내기 시작했다. 벽지, 바닥재에서부터 문고리 하나, 오브제 하나까지 스스로 선택해 직접 배치하고, 디자인하면서 '집'은 의미와 가치가 담긴 공간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이제 '집'은 단순히 '거주를 위한 공간'이 아닌 '나만의 공간,' 각박한 현실에서 탈출해 휴식을 취하는 안식처임을 자처한다. 셀프인테리어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 해시태그로 알아보자!

*게시물의 분류와 검색을 용이하도록 만든 일종의 메타데이터로, 해시 기호(#) 뒤에 단어나 문구를 띄어쓰기 없이 붙여 씀

집방 열풍

어떤 패션으로 개성과 자아를 표현할지, 어떤 음식을 잘 만들고 먹고 찾아야 할지에 대한 콘텐츠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점차 신선함을 잃고 있다. 반면, 셀프인테리어의 인기와 함께 '집방(집 꾸미기 방송)'이 방송가에 새로운 트렌드 이슈로 떠올랐다. 대중의 관심을 반영해 방송가는 JTBC '헌집 줄게 새집 다오', tvN '내 방의 품격' 등의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발 빠르게 '쿡방'에서 '집방'으로 대세가 기울어졌음을 인정했다. 인테리어에 기본조차 모르던 사람들은 이제 '집방'에서 알려주는 인테리어 팁, 제품정보를 바탕으로 나만의 집 꾸미기에 도전하며 자아표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다.



플래그십스토어의 대표 매장 세사에디션

Tip. 집방 열풍을 주도하는 Hot 키워드!

침실 분위기를 손쉽게 내 맘대로

침구



침구는 소재나 색상에 따라 색다른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 침실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아이템으로 손꼽힌다. 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장소인 만큼 침구 선택도 신중해지는 추세. 디자인은 물론, 건강을 고려해 기능성 제품을 선택하는 셀프 집방족이 늘고 있다.

고난도 홈 DIY 못하더라도 이것 하나만으로도 센스 있게

가구



개성에 따라 페인트 칠부터, 벽지 바꾸기 문짝 바꾸기까지 직접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시간도, 실력도 부족한 것이 현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구다.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도할 뿐만 아니라, 소재와 디자인에 따라 인테리어를 변화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에 따라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작지만 임팩트 강한 효과

소품



쿠션이나 인형, 캔들, 식기류, 테이블보 등의 소품을 이용한다면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인테리어 변화를 줄 수 있다. 플래그십스토어나 생활용품 전문점을 이용하면 시즌별 특징과 개성을 강조할 수 있고 가성비가 뛰어난 다양한 소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다.

플래그십스토어의 성장



특히 1인 가구의 증가와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 포인트가 될만한 독특한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플래그십스토어도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세사에디션, 이케아, 한샘인테리어와 같이 한 공간에서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고, 홈스타일링을 따라 해 볼 수 있는 토탈 리빙 플래그십 스토어의 인기가 높다. 지난해 오픈한 웰크론의 세사에디션은 '건강', '휴식', '문화'를 테마로 한 플래그십스토어로, 사용자의 건강을 지키고 개선하기 위한 고기능성 제품, 인체에 무해하고 안정성이 뛰어난 제품만을 엄선해 판매하고 있다. 아동 인테리어 제품부터 침구, 생활 가구, 소품, 식기류까지 나만의 집 꾸미기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온라인 집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성화와 함께, 자신이 꾸민 집의 사진을 올려 놓고 소품의 구매처와 시공 업체 등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또한, 셀프인테리어가 여가활동 또는 예술작업처럼 여겨지면서 그 결과물을 타인에게 선보이는 '온라인 집들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과거 새집으로 이사한 뒤 지인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했던 집들이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온라인집들이를 통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이야기'를 눈으로 읽는 문화가 생겨난 것이다. 2017년 단순한 거주의 공간이 아닌 나만의 공간에서 핫 키워드 아이템으로 개성을 드러내보자.

미소가 아름다운 워너비 스타 **하지원**, 세사리빙 세사의 새로운 얼굴이 되다!



2017 S/S시즌 세사리빙·세사 카탈로그 촬영 현장스케치

지난 1월 11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스튜디오에 순수함과
열정을 간직한
아름다운 그녀,
하지원이 나타났다.
2017 S/S시즌
세사리빙과 세사의
새로운 얼굴이 된
배우 하지원과 함께했던
뜨거운 현장을 웰크론인에 담았다.

센스 있는 그녀, 하지원 세사리빙·세사를 만나다

오전 9시.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배우 하지원이 반갑게 스태프들과 인사를 하고 첫 번째 콘셉트에 맞는 의상과 메이크업을 위해 분장실로 향했다. 드라마·영화·광고에서 꾸준한 사랑을 받으며 '믿고 보는 배우'로 불리는 하지원은 건강하고 세련된 매력이 돋보이는 스타다. 2030을 아우르는 젊은 감성 침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세사리빙과 세사는 2030 여성들의 워너비 스타일로 손꼽히는 하지원을 모델로 선정해 브랜드의 이미지를 한층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델이 분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촬영장은 더욱 분주해졌다. 웰크론의 침구디자이너들이 촬영용 침구의 주름 하나, 장식품 하나하나까지 확인하고, 조명 팀과 카메라 팀이 장비를 세팅하느라 소란했다. 소품과 침구가 멋들어지게 배치되고 환하게 조명을 밝힌 가운데 세사리빙·세사 전속 모델 하지원이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다. 하지원은 데뷔 20년 차 대배우다운 자연스러운 표정과 몸짓으로 세사리빙 침구의 깨끗함과 부드러움을 표현해냈다. 때로는 순수한 소녀의 모습으로, 때로는 청아한 예비 신부처럼 화사한 미소로 촬영스태프들의 박수와 호응을 이끌어 냈다. 모니터를 통해 촬영 컷을 확인하는 직원들과 스태프들의 입에서는 절로 감탄이 새어 나왔다.



계절별, 스타일 별 콘셉트에 따라 수차례 헤어와 패션 스타일링을 바꿨지만 열정적으로 촬영에 임하는 그녀의 얼굴에서는 한 점의 흐트러짐도, 피곤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하지원의 카탈로그 촬영 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국내 대표 연예정보 프로그램인 'KBS 연애가 중계' 촬영팀도 스튜디오를 찾았다. 이날 인터뷰에서 하지원은 근황과 더불어 자기관리의 노하우에 관한 질문에 '숙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센스 있는 답변으로 세사리빙과 세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세사리빙은 하지원과 함께 화보 촬영을 시작으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17년 S/S시즌 카탈로그 화보는 오는 2월 13일 이후 전국 세사리빙 대리점, 세사 매장, 홈페이지, 공식 SNS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웰크론그룹, '사랑의 연탄나눔' 사회공헌 활동 진행

- 2010년부터 매년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진행
 - 독거노인,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 3천 장과 웰크론 극세사 침구 전달



WELCRON
 Social contribution

웰크론그룹이 지난해 12월 9일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한 웰크론, 웰크론강원, 웰크론한텍, 웰크론헬스케어 등 그룹사 임직원 40여 명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 힘든 겨울을 보낼 이웃을 위해 인천 연탄은행과 협력해 연탄 3,000여 장을 직접 지고 나르며 따뜻한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특히, 갑작스레 떨어진 기온과 칼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지게에 연탄을 지고 수십 번씩 먼 거리를 왕복하며 모든 가구에 연탄을 안전하게 전달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았다.

2010년, 사내 봉사단의 연탄나눔 행사에서 시작된 웰크론그룹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은 매년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부터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연탄과 함께 웰크론의 극세사 침구도 함께 전달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연탄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은 "손과 발이 얼어붙는 추위에 몸은 피곤했지만, 우리가 준비한 연탄으로 훈훈한 겨울을 보낼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함을 나누는 사회공헌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웰크론 이경주 사장, 제30회 섬유의 날 모범경영인 대통령 표창 수상



웰크론의 이경주 사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진행된 '제30회 섬유의 날 기념식'에서 모범경영인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이경주 사장은 1985년 ㈜효성을 거쳐 1998년 ㈜웰크론에 입사해 사장으로 재직하며 반도체용 와이퍼, 나노섬유 울파필터, PTFE 멤브레인 필터 등 수입에 의존해 오던 첨단 섬유제품을 독자개발하는 데 성공했으며,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 웰크론을 극세사클러너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핵심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웰크론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과 우수 인재개발에 적극 앞장서 대한민국 섬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이경주 사장은 웰크론 기술연구소 연구원들과 함께 소재적용의 한계를 뛰어넘어 나노섬유를 새로운 산업분야에 적용하려 노력했다. 한방생리대로 잘 알려진 자회사 예지미인을 통해 2007년부터 웰크론이 개발한 고흡수성 부직포를 여성 위생용품에 적용한 데 이어, '방탄복용 방탄재의 직물구조' 국내특허를 취득하면서 나노섬유를 응용한 차세대 방탄복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 10월에는 경찰청과 39억 원 규모의 방탄·방검복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웰크론그룹, 2017년 공채 선발 및 신입사원 교육 진행

-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진출로 2013년부터 공채 1기 채용 시작으로 네 번째 공채 모집



웰크론그룹이 대졸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년 웰크론그룹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마감했다. 이번 공개채용은 인·적성 검사와 1차 면접(사무, 영업, 생산, 기능직은 PT면접, 기술 직군은 실무면접), 2차 임원면접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이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인원이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다.

채용 범위는 사무, 영업, 기술, 생산, 기능 5개 직군에서 인사/총무, 회계, 마케팅, 구매, 영업, 해외영업, 기술영업, 기계설계, 화공, 생산관리, MD, 디자인의 12개 부문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공채는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난 공개채용과 달리, 지원자격에 제한이 없는 열린 채용 방식으로 진행해 채용의 폭을 대폭 넓혔다.

웰크론그룹이 이 같은 채용을 실시한 배경은 기존사업의 호조와 신사업 진출에 따른 인재 확보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롭게 선발된 신입사원들은 지난해 25일부터 2박 3일간 안산중소기업 연구원에서 진행된 신입사원 워크숍에 참여했고, 1월 2일부터 각 부서에 배치돼 근무를 시작했다.

웰크론한텍, 안양 건축문화상 수상 - '2016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부문 특별상 수상



웰크론한텍이 지난해 12월 1일 안양시청 홍보홀에서 진행된 '2016 안양시 건축문화상 페스티벌' 시상식에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공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웰크론한텍은 뛰어난 기술과 견실한 시공으로 미적 감각이 뛰어난 '아리온 테크놀로지' 사옥을 건축했을 뿐만 아니라, 건축기술 발전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안양시의 건축 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웰크론한텍은 지난 2014년 97억 규모,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약 11,397㎡)의 경기도 안양 아리온테크놀로지 사옥 신축공사를 수주하고 2015년 12월 말 시공을 완료했다.

안양 건축문화상 페스티벌은 미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을 발굴해 도시경관 조성에 기여하고 미래 건축문화를 이끔 인재를 찾기 위한 행사로, 2003년부터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어 올해 11회차를 맞이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건축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와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각각 선정한 '아름다운 건축물'부문 8작품, 계획부문 학생부의 건축설계부문 7작품, 도시디자인부문 3개 작품 등 우수작 18점의 설계 및 시공자와 건축주 등 34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웰크론한텍이 시공한 아리온테크놀로지 사옥 외 기타 수상 건축물의 사진과 모형은 12월 9일까지 안양시청 홍보홀에 전시되어 시민에게 소개됐다.



웰크론강원, 중국 국영기업과 184억 원 규모 산업용 보일러 공급계약 체결 - 중국 국영기업을 통한 첫 해외프로젝트 수주로 영업망 확보 기대



웰크론강원이 중국석유공정건설공사인 CPECC(China Petroleum Engineering & Construction Corp)와 184억 원 규모의 스팀 보일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 건은 카자흐스탄의 PKOP(PetroKazakhstan Oil Products LLP)가 발주하고 중국석유공정건설공사인 CPECC가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심켄트 석유정제시설 현대화 프로젝트에 시간당 180톤의 증기를 생산하는 산업용 보일러 2기를 공급하는 건으로 웰크론강원은 보일러의 설계 및 제작, 현장 조립을 담당하게 된다. 납기기한은 본 계약 체결 시

점인 2016년 11월 28일부터 17개월 후다. 카자흐스탄 심켄트 석유정제시설 현대화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정유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심켄트 지방의 정유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으로, 1985년 세워진 정유시설을 정비해 연산 520만 톤이던 정유량을 600만 톤까지 늘리게 된다.

웰크론강원은 최근 쿠웨이트 알주르 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247억 원 규모의 보일러를 공급하는 본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국내는 물론 해외기업으로부터 크고 작은 수주와 LOI 체결로 하반기에만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수주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번 계약은 중국 국영기업과의 첫 거래가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국시장의 신규 영업망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웰크론강원 관계자는 "세계적인 수주시장 침체에 대비해 국내는 물론 해외 기업을 통한 수주를 위해 벤더 등록과 직접 영업활동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번 거래가 해외 에너지 플랜트 시장에서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국영기업과의 첫 거래라는 점에서 추후 영업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웰크론헬스케어 좌훈썩썩질패드, 홍콩 최대 드럭스토어 '왓슨스' 입점 - 2014년 첫 수출 이래 해외 11개국에 판매돼



에지미인 좌훈썩썩질패드가 홍콩 최대 드럭스토어인 '왓슨스'에도 입점한다. 좌훈썩썩질패드는 홍콩 왓슨스 전체 150개 매장 중 1차로 80개 매장에 입점하게 됐으며, 향후 전 지점으로 입점 매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좌훈썩썩질패드는 홍콩의 대표적인 드럭스토어인 '샤샤' 113개, '매닝스' 220개, '봉주르' 38개, '컬러믹스' 64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2005년 첫선을 보인 이래, 2014년부터 현재까지 홍콩을 비롯한 11개국에 수출됐다. 2009년에는 외국인 관광 쇼핑 코스인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외국인 관광객 구매율 1위를 기록하며 주목 받은 바 있다.

에지미인 좌훈썩썩질패드는 국내산 강화사발썩, 천궁, 백지 등의 생약 분말을 함유한 한방패드에 발열팩을 붙여 간편하게 좌훈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탁월한 온열효과로 손발이나 아랫배가 차가운 여성, 산후조리가

필요한 산모, 생리 전후 여성의 건강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겨울철 스키나 골프 등 야외 활동 시에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웰크론기술연구소, PTFE 소재 인공혈관 튜브 개발 성공



웰크론기술연구소가 국내 최초로 폴리테트라플루오르에틸렌(PTFE) 소재의 '인공혈관 튜브'를 개발하고 올해 상반기 내 상용화할 계획이다. 웰크론은 2012년 12월부터 개발을 시작해 4년 만에 이 같은 성과를 거뒀으며, 지난 12월 초 충북 음성 공장에 생산설비도 마련했다. 동물실험을 통해 적합성과 안정성도 인정받았다. 인공혈관용 튜브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말초혈관질환 수술에 쓰이는 의료 제품으로 혈관을 대체하거나 확장, 교정하는 역할을 한다. PTFE 소재는 생체적합성이 뛰어나고 강도를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운 성질로 혈관에 안정적으로 삽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TFE의 이 같은 성질은 0.1마이크로미터(μm)~1μm 크기 지름을 가진 미세 공기구멍들을 균일하게 연어아 만들어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

원에 따르면 국내 인공혈관 시장은 1300억 원대 규모로 추산된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PTFE 소재의 혈관용 튜브가 개발되지 않아 미국 업체들로부터 전량 수입해 왔다. 수입 제품의 1m당 가격은 20만~30만 원에 이른다.

웰크론강원, S-Oil 울산공장에 56억 원 규모 폐열회수보일러 공급
 - 美 PCC 社를 통해 에쓰오일 울산공장 프로젝트 수주



웰크론강원이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PCC(Process Combustion Corporation) 社와 56억 원 규모의 폐열회수보일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에쓰오일 울산공장 잔사유 고도화 콤플렉스 프로젝트에 폐열회수보일러 2기를 납품하는 것으로, 웰크론강원은 설계, 제작부터 설치, 시운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괄 수행하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한다. 설비의 납기 기한은 오는 9월 28일까지다.

폐열회수보일러는 가스, 정유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해 공정용 증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석유화학단지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웰크론강원은 GS칼텍스, SK가스, S-Oil 등 국내 대형 가스·정유회사의 공장에 폐열회수보일러를 공급하는 등 국내외 2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번 공급계약으로 웰크론강원은 에쓰오일 울산공장에 두 번째 설비를 공급하게 됐다. 지난해 10월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섹터에 60억 규모의 산업용 보일러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제작 중에 있으며, 이번 미국 PCC 社를 통한 추가 계약으로 폐열회수보일러 2기를 추가로 납품하게 된다.

웰크론강원 관계자는 “동일한 프로젝트에서 복수의 시공사와 수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웰크론강원의 기술력이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의 수주처에 대한 영업을 더욱 강화해 추가 실적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웰크론한택, 305억 원 규모 양지 테라스하우스 건축공사 수주
 - 주택건설 분야 첫 수주로 사업영역 확장



웰크론한택이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위치한 '포레스토리 테라스하우스' 신축 건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번 계약은 양지 테라스하우스 프로젝트 시행사인 ㈜포디움이 앤씨와의 공사도급계약 건으로 총 공사비는 305억 원이며 공사 완료기한은 착공 이후 18개월이다. 현재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건축인허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된 상태로 추후 개발신탁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으로 웰크론한택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대규모 테라스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단지 규모는 대지면적 29,295㎡으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공동주택 174세대와 커뮤니티시설, 유틸리티센터 등 부대시설과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갖춘 대규모 테라스하우스 단지로 조성된다.

웰크론한택 건설사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 참여로 기존 산업시설, 제조공장, 물류센터 등 산업플랜트 건설 중심에서 주택건설 분야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첫 주택분야 진출인 만큼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예지미인, 휴대가 간편한 여성청결티슈 출시



웰크론헬스케어의 한방 여성용품 브랜드 예지미인이 티슈 형태의 휴대용 여성청결제 '예지미인 여성청결티슈'를 출시했다. 예지미인 여성청결티슈는 거품이나 젤 타입으로 씻어 내야 할 필요 없이, 간편한 티슈 형태로 휴대하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물에 잘 분해 되는 원단으로 제작돼 사용 후 티슈를 변기에 직접 버려도 막힐 우려가 없어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여성의 내음부는 유해균이 침투해 염증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산성도 PH 3.8~4.2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데, 예지미인 여성청결티슈는 이와 유사한 PH 5.5의 약산성 제품으로, 여성 pH밸런스의 조절을 돕는다. 여기에 발효균, 버드나무, 편백, 마치현 등 피부보습 효과가 뛰어난 7가지 특허추출물과 청정지역 제주의 허브 추출물 또한 함유돼 피부자극이 적

고 위생적이며 생리 기간 중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여성청결티슈에 포함된 페퍼민트 오일의 청량한 향은 불쾌한 냄새를 없애고 상쾌한 느낌을 제공한다.

이에 대해 예지미인 관계자는 “최근 개인위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여성건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지미인 여성청결제와 더불어 여성청결티슈도 여성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예지미인 여성청결티슈는 이마트 127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세사·세사리빙 2017년 S/S시즌 신상품 수주회 성료



웰크론의 가능성 침구브랜드 세사와 세사리빙이 2017년 S/S시즌 신상품 출시를 앞두고 신상품 품평회 및 수주회를 진행했다. 세사는 지난해 12월 29일 구로동 본사 세사에디션에서 내부 품평회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백화점 56개 매장에 입점한 세사 매니저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날 출품된 총 38종의 상품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20개의 상품이 최종 출시 제품으로 선정됐다.

세사리빙은 지난해 12월 14일과 15일 충남 예산 리솜리조트에서 '2017 S/S 신상품 수주회 및 성공전략 워크샵'을 실시했다. 이번 수주회에는 전국 200여 개 대리점 점장들이 참석했으며, 이영규회장님과 웰크론 이경주사장님을 비롯한 웰크론그룹 임직원들도 참석해 대리점 점장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수주회는 수주 집중도 향상을 위해 이틀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2017 S/S시즌 신상품 트렌드 소개와 상품교육이 진행됐다. 또한 새로운 시즌 매출을 책임질 싱글(유스/어덜트), 커플(뉴메리트&미메이저, 기프트(에디)) 칠드런, 단품/소품의 7가지 군, 총 240여 종의 신상품을 대리점장들에게 최초로 선보였다.

Q 웰크론인 8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 2016년에 배우 유아인 광고 촬영 현장을 소개한 내용을 보고 많이 설레었는데, 실제로 TV 광고나 포스터에서 세사리빙 광고모델로 활약하는 유아인 씨의 모습을 보니 무척 반가웠습니다. 특히, 세사리빙 이미지가 젊고 스타일리쉬한 느낌으로 바뀐 것 같고, 주변에서도 '세사리빙'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 웰크론그룹 직원의 가족으로써 저 또한 뿌듯했습니다. 2017년에는 어떤 새 모델과 함께할지 기대하겠습니다!

— 서울 서초구 **이아름** 님

* 매년 야간행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놀랍고 대단해 보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몸도 마음도 지치기 마련인데, 전 직원이 극기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야구동호회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 '에너지와 열정이 넘치는 회사'라는 생각에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직원가족을 소개하는 코너도 흥미롭게 읽고 있는데요, 웰크론인을 통해 회사에 대한 소개는 물론, 직원들의 인간미 넘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좋습니다.

— 광주 남구 **김수혁** 님

* 뉴스에서 거대한 보일러 이송 건이 방송되는 것을 보았는데, 웰크론강원에서 제작한 것이었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보일러의 규모가 크기도 크거니와 엄청난 양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단니, 산업용 보일러가 어떤 것인지도 몰랐던 제게는 모든 내용이 신기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웰크론강원이 해외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서울 마포구 **송민아** 님

빨간 우체통



Quiz 웰크론헬스케어에서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고민하는 섬세한 피부과학'이라는 철학을 담은 화장품 브랜드 을 론칭했다.

웰크론그룹 사보 welcron+in 2017년 신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진 welcron+in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소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uiz의 정답 및 독자 의견을 보내주신 분 중 총 10분을 추첨하여 8만 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의견과 소감을 담아 더욱 나은 사보를 제작해 나아가는 welcron+in이 되겠습니다.

* 정답 보내실 곳 jjy@welcron.com



*이미지컷입니다

편집 후기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는 정치, 경제적인 불안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한 해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지난 호를 발간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한 연초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번 호를 통해 보여드리는 웰크론그룹의 발전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2017년에는 '붉은 닭'이 지닌 총명한 기운을 담아 세심하게 주변을 관찰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도전해 연초에 목표로 했던 소망 모두 이루시고, 이 난관을 다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웰크론그룹 전략마케팅실 홍보IR팀(pr@welcron.com)

Welcron Campaign

화재걱정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이한 우리 사무실은 청소가 한창입니다.

잡동사니로 가득 찬 서랍장을 비우고 해묵은 자료를 정리하고, 업무파일은 종류별로 구분해 반듯하게 세워놓고 책상 위 구석구석 숨어있던 쓰레기를 버립니다.

여기에 지난 한 해, 우리의 마음에 남긴 아쉬움도, 후회도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기대와 설렘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정돈된 사무실의 모습 뒤에 감춰진 화재위험을 인지하고 계신가요?

책상 아래, 전기 콘센트 사이사이에 시커멓게 엉켜있는 먼지!

전기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습기를 흡수하게 되면, 전기가 먼지 쪽으로 흘러 열이 축적되고 불이 쉽게 붙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됩니다.

화재를 키우는 불쏘시개, 먼지를 털어내고 청결한 사무실에서 안전하게 근무하세요!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웰크론그룹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